

## 1923년 개성상인의 중국유람기 『中遊日記』 연구\*

이은주\*\*

1. 서론
2. 개성상인 공성학의 1923년 중국여행
3. 개성상인 공성학이 본 중국의 모습
4. 낯익은 세계의 확인 :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孔聖學의 『中遊日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료이다. 하나는 20세기 초 구한말의 지식인이 중국을 유람한 기행기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을 쓴 공성학이 한말4대가였던 滄江 金澤榮에게 수학하고 뒤에 경학원 부제학을 역임한 문인이자, 시문을 짓고 시회를 열었으며 적지 않은 출판 사업에 간여한 개성상인이라는 사실이다.

개성삼업조합원인 공성학과 손봉상, 조명호, 박봉진, 김원배, 미쓰이 물산의 아마노 유노스케[天野雄之輔]로 이루어진 이 여행단은 1923년 4월에서 5월 초순까지 43일 동안 미쓰이 물산의 후원 아래 상해, 소주, 항주, 남경에서 곡부, 여산, 태산을 거쳐 북경, 대련, 심양, 여순 등지를 둘러보고 돌아왔다. 중국 여행은 조선시대 문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었을 법한 일로 20세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 강의교수.

이 원고를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자료 및 해석, 논문의 방향 등 여러 면에 걸쳐 적절하고 유용한 지적과 논평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본문에서는 황재문 교수의 규장각 해제와 심사위원의 논평을 수용하여 『중유일기』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친일성향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다.

기의 개성상인 공성학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中華’의 후광이 사라진 중국을 바라보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유일기』는 전대 중국여행기와 구분된다.

공성학은 한편으로는 낯익은 중국을,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중국의 모습을 그려냈다. 곡부 공씨의 일원인 공성학은 중국에 대해 가문의 근원지이자 망명한 창강 김택영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인식했고, 중국에서 만난 조선인들을 눈여겨보고 기록했다. 공성학과 중국은 혈연과 스승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였다. 이러한 연결점을 제외하고 바라볼 때 중국은 더 이상 문명권의 중심으로 군림하지 못했다. 한학을 배웠으므로 중국의 명승지를 바라보면서 독서로 구축된 관념경을 떠올린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성학은 실제의 모습을 목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관념 속의 모습과 비교하고 실망했다. 공성학의 인식 속에서 중국은 찬탄이나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서구/일본의 관점에 서서 중국을 근대적으로 낙후된 국가로 바라보는 모습과 표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공성학은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적지 않은 기록을 남겼고 1930년대에는 왕성하게 간행 사업에 힘썼다. 『중유일기』에서 공성학은 고려 유민을 자처하는 개성 문인이자 조선총독부와 미쓰이 물산에 협력하는 개성상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고에서 파악한 이러한 면모가 그의 시문창작과 간행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 孔聖學, 『中遊日記』, 1923년, 개성상인, 중국여행, 근대, 미쓰이 [三井] 물산

## 1. 서론

설악산과 금강산, 강화도의 마니산, 호남과 영남 일대를 편력하면서 ‘東遊’와 ‘西遊’, ‘南遊’를 했다고 자부했던 17세기의 문사 金道洙(1699~1733)조차도 중국의 명승을 유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한 바 있다.<sup>1)</sup>

중국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다는 것은 사실 조선 문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법한 공통된 열망이었을 것이다.

20세기 초 개성상인이었던 孔聖學(1879~1957)은<sup>2)</sup> 중국 강남에서 북경까지 편력하는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왜 유독 중국 여행이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왜 중국 여행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른 것인가를 서술한 다음 대목에서, 그는 조선 문인에게 중국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예전에 일본을 세 차례 여행했는데 직접 가서 보고 들어서 다소간의 느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한 차례 중국에 갔을 때보다 절실하고 급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나라는 4천 년 역사 속에서 오로지 중국만을 배워서, 여덟 살에 학문에 입문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먼저 『史略』 3권을 읽은 뒤에 『通鑑』 15권을 읽는다. 유년 시절 머리가 깨치기 시작할 때 『史記』가 머릿속에 환하게 있기 때문에 역대 제왕의 계통과 인물의 이름부터 산천과 풍속, 칭호, 연혁에 이르기까지 모두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누가 묻는다면 멍하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평소에 익숙한 견문을 가지고 지금 현지 답사를 하고 보니 실로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동쪽과 서쪽을 분간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느끼는 바가 절로 일본의 유람과는 차이가 나게 되었다.<sup>3)</sup>

- 1) 『春洲遺稿』 권2, <南遊記>, “余竊自惟恨大明之亡也, 少讀詩略知辨物通情, 讀書觀古君臣之際, 使一到天子之庭, 吐胸中之有, 雖朝暮死而無悔也. 嗟乎! 安得溯龍門砥柱而窮黃河之源也? 余嘗讀范仲淹岳陽樓記, 恨其文之繁也, 洞庭湖七百里, 望君山一點足矣. 然則此南遊錄何足道哉! 此南遊錄何足道哉!”
- 2) 공성학의 생애와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 1(민족문제연구소, 2009)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본고와 관련된 부분만을 보면, “1922년 4-5월 홍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중략) 중국 각 지역을 여행했다.”에서 1922년은 1923년의 오기이며, 공성학의 저서 중 『香臺紀覽』(1931)은 홍콩[香港]과 타이베이[臺北]를 여행한 기록이므로 두 도시의 앞 글자를 합해서 붙인 “香臺紀覽”의 오기이다.
- 3) 『中遊日記』, “余曾游日本三回, 其足跡之所到耳目之所觸, 非無多少感想, 未有若一見中華之切實敏速也, 何也? 吾東四千年歷史專學中華, 八歲入學之童必先讀史略三卷, 後讀通鑑十五卷, 乃已方其幼年聰明之時, 一部史記貫徹腦裏, 故歷代帝王系統及人物姓名以至山川風俗稱號沿革皆指諸掌而談論. 若有問於自國歷史則懵懵然一啞矣. 然則以平生所慣的聞見今踏實地, 實有見一知二指東辨西之所驗, 而其所感想, 自有異乎日本之遊也.”

『中遊日記』<sup>4)</sup>는 1923년 4월에 공성학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일정과 견문을 쓴 일기체의 유람기이다. 공성학은 孫鳳禎(1861~1936)과 朴鳳嶺의 권유로 이들과 함께 홍삼 판로를 시찰할 겸 43일간의 중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이 일기에는 홍삼 판로에 대한 기술도 들어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여행하면서 본 명승지에 대한 기록과 감상에 대한 것이다.

그 전에도 드물긴 했지만 중국 사행체험을 통해, 또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에 표착한 뒤 환송되는 등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행길을 따라 가는 경우라면 여정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고, 표착되어 환송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운신의 폭이 좁았다. 이처럼 전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중국을 여행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공성학 일행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상당히 많은 곳을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중국 유람을 동경해 왔던 조선 문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은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중유일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국면은 20세기 초 구한말의 중국유람기라는 측면만은 아니다. 공성학, 손봉상, 박봉진 등 개성인삼 판매를 주도했던, 이른바 대한제국시기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회를 열고 시를 수창하는 문학 그룹을 형성했다. 이 일기 역시 유람한 곳에 대해 기록한 뒤 시를 지어 감회를 표현하는 전대 문인들의 글쓰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공성학의 경우 滄江 金澤榮에게 사사했을 뿐만 아니라 8권 8책의 『春圃詩集』을 남겼으며, 함께 간 손봉상 역시 문집 『韶山集』이 전한다. 이들은 이후 개성과 개성 지역 문인을 중심으로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서문을 쓰는 등 출판 사업에 일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20세기 초 일군의 개성상인들로 이루어진 문학 집단의 성격을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공성학의 저서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중유일기』에 주목하였고, 『중유일기』의 성격과 20세기 초 한말 문인들의 관

4) 孔聖學의 『中遊日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經古 816-C588, 新式活字, 1923년 간행, 1책 72장, 肖像), 고려대학교 도서관(만송 B8-B6), 성균관대학교 존경각(B16I-0007), 남평문씨 인수문고(인-460)에 소장되어 있다. 간지, 간년, 면수 등의 서지사항으로 볼 때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심사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2. 개성상인 공성학의 1923년 중국여행

공성학의 집안은 대대로 蓼圃耕作에 종사했지만 孔應奎(1857~1933)에<sup>5)</sup> 이르러 개성 거상의 반열에 올랐다. 공응규의 차남으로 가업을 계승한 공성학은 삼포 경영에 주력하면서도 여러 사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개성을 대표하는 실업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1923년에 공성학에게 함께 중국에 가자고 권유했던 손봉상과 金元培 역시 대대로 이어온 삼포 경영으로 재산을 모은 대표적인 개성상인이었고, 永信社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동시에 개성상인 전래의 貸金業도 겸하고 있었다.

공성학은 부친 공응규와 교유가 있었던 손봉상과<sup>6)</sup> 여러 사업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공성학은 손봉상과 함께 인삼의 품종 개량과 경작 방법을 개선하는 등, 삼포 경영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들을 강구했고 개성인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개성인삼업자의 조합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초대 삼업조합장인 손봉상에 이어 제2대 삼업조합장을 지내기도 했다. 1912년에는 永信社 설립에 관여하여 대금업을 경영했고, 고려삼업주식회사, 개성전기주식회사, 송도고무공업주식회사 등에 참여했으며 개성양조주식회사, 春圃社, 開城蓼業株式會社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시기 공성학을 비롯한 개성상인들은 삼포 경영에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근대 기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sup>7)</sup>

5) 손봉상이 쓴 <正三品侍從院侍從孔公(應奎)墓碣銘>(『韶山集』 권2)에 따르면 공성학의 부친 공응규는 가난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6) 1937년에 손봉상을 위해 쓴 <墓碣銘>(『소산집』 권3 附錄)에서 공성학은 둘의 관계에 대해 “顧聖學先君與公有舊，況余追隨杖屨於社會，以涉中外海岳三十年于茲矣。”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7) 대체로 이 시기 개성상인들의 사업 영역이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것에 대해 이훈섭(『개성상인론』, 경기대학교출판부, 2006)은 대한제국말기와 일제초기 민족기업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즉, 민족기업가들이 일본인의 자본 침투를 막기 위해 기업 성패보다는 민족자본에 의한 향토개발에 힘썼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성학은 적지 않은 저술과 함께 여러 출판물을 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정치적 진출이 봉쇄되면서 문인임과 동시에 상인으로 살아야 했던 개성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이 깊다. 대대로 삼포 경영에 종사했던 공성학은 창강 김택영에게서 한학을 사사했고 開城文廟의 司成과<sup>8)</sup> 經學院의 副提學을<sup>9)</sup> 역임했던 이력이 있었다.<sup>10)</sup> 또한 8권 8책의 『춘포시집』 이외에 『香臺紀覽』, 『蓬萊聯賞錄』, 『湯島紀行』, 『湖西紀征』, 『香山漫錄』 등의 여러 여행기록을 남겼다.<sup>11)</sup> 이 중 『중유일기』는 공성학이 쓴 가장 이른 시기의 여행기록으로 보인다.<sup>12)</sup>

공성학은 「緒言」에서 삼업 조합에서는 몇 년간 중국의 홍삼 판로를 시찰

- 8) 「孔聖學이 開城文廟의 司成으로 任命」,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9월 30일자 기사.
- 9) 「經學院은 副提學에 俞萬兼(前忠北知事)…」, 『每日新報』, 1943년 5월 1일자 기사. 경학원은 대한제국기인 1887년에 성균관이 개칭된 이름이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뒤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성균관을 폐지하고, 1911년 6월 15일에 조선총독부령 제73호 경학원규정에 따라 경학원을 설립하였다.
- 10) 공성학이 쓴 <묘갈명> 『소산집』 권3 부록)에 따르면 손봉상 역시 經理院 主事(1906), 開城文廟司成, 崧陽書院長, 杜門洞書院長(1928)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11) 간략하게나마 공성학이 관여한 저작 및 출판물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공성학의 저작에는 자신의 문집 『春圃詩集』(8권 8책, 普成社, 1949), 『春圃壽言彙錄』(1책, 漢城圖書株式會社, 1940), 여행기록인 『湯島紀行』(1책(29장), 春圃社, 1936), 『湖西紀征』(1책(26장)春圃社, 1938), 『蓬萊聯賞錄』(7권 1책, 간지미상, 간년미상)이 있으며, 공성학이 편집한 간행물로는 『杜門洞書院誌』(3권 1책, 杜門洞書院事務所, 1937), 『香臺紀覽』(4권 1책, 中央印書館, 1931), 『楓嶽同遊錄』(1책, 漢城圖書株式會社, 1941), 『南遊錄』(1책(31장), 간지미상, 1924), 『香山漫錄』(1책(19장), 간지미상, 간년미상), 스승인 김택영의 행적을 기록한 『滄江實紀』(2권 1책, 간지미상, 1934), 스승 박문규의 시집인 『天游集古』(2권 1책, 春圃社, 1938), 『天游詩集』(1책, 春圃社, 1938), 許應의 『雲湖堂贅言』(2권 1책, 春圃社, 1939), 金鎭萬의 『春亭集』(1책(104장), 金天浩, 1946), 孫鳳祥의 『韶山集』(3권 2책, 孔聖學家, 1939), 『麗韓十家文抄』(11권 3책, 南通: 翰墨林書局, 1921), 孔僊의 『孤山先生實記』(2권 1책, 春圃社, 1936)가 있다. 그런데 현재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볼 때 소장본에 따라 몇몇 간행물은 간년과 간지가 달리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작성된 서지사항이 오류인 경우도 있고, 판본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서지사항과 실물 대조를 완료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서지사항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공성학과 관련된 간행물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12) 『중유일기』를 다룬 연구서는 없지만 『중유일기』에 대한 규장각 해제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해제(강문식)와 어학해제(황재문)에 모두 중국을 가게 된 경위와 일행, 여정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어학해제(황재문)에서는 이 자료의 주된 내용이 중국의 명승지 및 일본인의 업적에 대한 예찬이며, “馬關 春帖樓에서 伊藤博文과 李鴻章의 영웅적 기상을 칭송한 것과 大連에서 東洋의 形勢를 유지하느라 一心報國하는 일본군의 노력을 읊는” 등 친일적인 색채가 짙게 나타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의 2장은 해제를 참고하여 서술하였고, 구체적인 정황설명을 덧붙였다.

하려고 했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개성삼업조합의 組合長 손봉상과 理事 박봉진이 공성학을 불러 이모리(伊森) 소장<sup>13)</sup> 書記長 趙明鎬가 시찰을 권유했으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공성학은 중국어에 능하지 못해서 망설였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1923년 4월 1일에서 5월 14일까지, 43일간의 중국여행을 함께 한 사람은 공성학, 손봉상(號 韶山), 趙明鎬(1884~?),<sup>14)</sup> 박봉진(호 慎齋), 金元培(호 海石)였고, 미쓰이[三井] 會社 京城支店長代理 아마노 유노스케[天野雄之輔, 1877~?]가<sup>15)</sup> 카메라를 들고 동행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 여행은 조선총독부 전매국과 미쓰이 물산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일행은 가는 곳마다 미쓰이 물산 직원들의 안내와 접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일본을 경유하는 동안 후한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공성학은 동행했던 아마노 유노스케에게 자신들이 마치 미쓰이에서 주최하는 관광단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sup>16)</sup>

공성학 일행은 개성에서 육로를 통해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본을 거쳐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로 중국 내 철로변에 비적[土匪]과 일본에 적대적인 이들이[排日] 많아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sup>17)</sup> 그래서 이들은 개성에서 서울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 뒤, 다시

13) 1918년 5월 朝鮮總督府 技師로 전임하여 조선에 건너온 뒤 당시 度支部 專賣課 開城出張所 長을 맡고 있었던 이모리 겐조(伊森賢三, 1879~?)이다. 『人蔘ニ關スル研究報告, 第三號: 高麗人蔘作柄, 氣象の考察附表』를 작성한 바 있다.

14) 조명호는 1922년도에 조선총독부직속기관 전매국 경성전매지국 개성출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이 때 전매과 개성출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囑託으로 小原他吉, 技師로 伊森賢三, 趙明鎬, 金奎炳, 岡田斧吉. 技手로 山階賢隆, 久保田貞, 武藤照吉, 湯田房治, 池田彌助, 佐藤梧一, 大野勲

15) 『半島官財人物評論』(1926)에 소개된 天野雄之輔의 인물평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조선전문가가 되었으며, 三井物産에 없으면 안 되는 인물로 비대한 체구가 말해주듯 성격은 대단히 완만함. 웅장한 그 사교적 수완을 익히는데 상당한 고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住井支店長의 영전설이 전해지는데, 그의 지점장 승격설이 있는 것은 당연함. 좌담에 능하며, 설득력 있는 말투로 상대방을 혹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참고)

16) 『중유일기』, 4월 4일자, “余願謂天野曰: ‘自漢城發時, 意謂有紅蔘販路視察目的矣. 自門司至此, 只受三井支店之迎送宴會, 今余之行便是三井主催觀光團也.’”

17) 『중유일기』, 4월 1일자, “今此之行不由京奉線直行, 而由馬關抵長崎航行者, 蓋中華各鐵路沿

부산에서 일본을 경유하여 중국 상해로 들어가는 교통편을 택했다. 『중유 일기』는 당시에 이미 발달한 철도 교통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이동 경로가 시간별로 기술되어 있다.

4월 1일에 개성에서 출발한 공성학 일행이 일본을 경유한 뒤 중국 상해에 도착한 것은 4월 6일이었다. 일본에서 상해로 건너간 뒤 공성학 일행이 43일간 여행한 곳은 대략 상해, 杭州, 蘇州, 南通, 南京, 廬山, 北京, 天津, 泰山, 曲阜, 濟南, 靑島, 大連, 奉天(瀋陽), 旅順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방문한 장소가 좀 더 추가된 점은 있지만 이러한 여정은 풍량을 만나 표해하다 중국에 표착하여 고국으로 채송된 체험을 기록한 일련의 표해록군, 곧 최부의 『漂海錄』, 박지원이 정리한 『書李邦翼事』, 『승사록』 등에서 항주, 鎮江, 徐州, 제남, 북경, 심양 등을 거쳐 돌아오는 경로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경로는 명대의 사행로이기도 했는데,<sup>18)</sup> 공성학 일행의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邊土匪及排日多有, 不穩狀態故也.”

18) 전해중, 『韓中關係史研究』, 일조각, 1970. 이 경로는 중국으로 使行할 때 거치는 경로로 세종 3년(1421)까지는 명나라의 수도가 金陵(현 南京)이었으므로 水路를 이용하였으며, 명나라 말경까지는 遼東벌을 거쳐 서울-의주-連山關-成京(瀋陽)-廣寧-前屯衛-山海關-燕京으로 다녔다.

기본적으로 1923년 공성학 일행의 중국 방문은 홍삼 판로를 타진해보겠다는 시찰의 성격이 강했고, 이는 『중유일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남통을 제외하면 이들의 여행 계획과 안내는 거의 미쓰이 물산에서 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들은 도착 즉시 미쓰이 물산 지점의 지점장 또는 직원의 안내와 접대를 받았으며, 중국의 홍삼판매장(蔘號)의 지배인들을 만나면서 홍삼 가격과 판로, 저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인삼은 오랫동안 조선 왕조의 주된 재원이자 무역품이었고, 인삼과 관련된 이권은 왕실에서 장악했다. 인삼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일제 식민통치기에는 인삼 관련 이권을 조선총독부에서 장악하고<sup>19)</sup> 홍삼제조 및 경작, 판매, 수출 등 전반에 대해 통제하였다.<sup>20)</sup>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관장하고 생산된 홍삼은 1914년 이후 일본독점자본 미쓰이 물산주식회사에만 불하되었다.<sup>21)</sup> 미쓰이 물산은 불하 받은 홍삼을 주로 중국 시장에 판매하였는데 염가 불하와 해외독점판매로 폭리를 취하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sup>22)</sup> 1910년 대한제국기의 인가단체인 개성삼업조합이 해산당하고 그 조직을 내적으로 계승하여 재발족한 개성삼업조합으로서<sup>23)</sup> 인삼의 경작권을 장악하고 삼업 관련 회사를 조직하면서 홍삼 판매의 중국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미쓰이 물산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했다. 공성학 일행은 여행 첫

19) 조기준,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3, 282~283쪽.

“1905년의 乙巳條約의 결과 韓國의 財政管理權이 日人 統監府의 지휘를 받게 되자 蔘稅 및 紅蔘專賣收入은 國庫收入으로 移管됐다. 따라서 그 管理權도 度支部에 歸屬하게 되었다. 그 후 政府는 隆熙 2년(1908년) 7월에 法律 第14號로 紅蔘專賣法을 公布함에 이르렀다.

紅蔘專賣法은 全 25 條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骨子는 다음과 같다. 즉,

1. 人蔘의 栽培는 政府로부터 免許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2. 栽培된 人蔘은 모두 政府에 納品하되 政府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賠償金을 交付한다.
3. 紅蔘의 제조는 政府에 專屬되며
4. 紅蔘의 판매 또는 수출은 政府 또는 그가 지정한 商人만이 할 수 있다.
5. 政府는 納品 받은 水蔘中에서 紅蔘製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를 元納者에 交付한다는 것이다.”

20) 윤선자, 「일제의 경제수탈과 개성의 상업」, 『한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21) 김옥근, 『일제하조선재정사논고』, 일조각, 1994.

22) 「財閥과 利權, 紅蔘販賣와 三井 暴利」, 『동아일보』, 1931년 3월 16일자 사설.

23) 한국인삼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인삼사』 上·下권, 한국인삼경작조합연합회, 1980.

날 서울 남대문역에서 마중 나온 아마노 유노스케를 만났는데 이때 이 여행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날 12시 경성 남대문역에 도착했다. 미쓰이 물산 경성지점장대리 아마노 유노스케가 차를 가지고 역에 나와 맞이하였다. 이 사람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홍삼사무를 맡은 지 20년이 되며 중국으로 여섯 차례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 인물로, 전매국 아오키[青木] 국장과 이마무라[今村] 과장이 스미이 [住井] 지점장과 교섭하여 아마노 씨에게 우리 일행을 위해 안내하면서 편의를 도모해달라고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마중 나온 것이었다. 차를 타고 미쓰이 물산에 가서 감사를 표한 뒤 조합장(손봉상)의 아들 孫洪駿에게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총독부에 갔다. 아오키 국장이 안내하여 사이토[齋藤] 총독과 아리요시[有吉] 정무총감에게 떠난다고 알리자 각각 훈시 말씀이 있었다.<sup>24)</sup>

실제로 상해에 도착한 다음날인 4월 7일에 공성학 일행은 미쓰이 물산의 안내로 5대 蔘號[葆大參號 金階, 元昌參號 胡錫琪, 阜昌參號 孔慎甫, 德昌參號 鄭栽祺, 裕豐德參號 鄭天陵]를 만났고 이들이 모여 홍삼의 판매 근수, 가격, 미쓰이 물산과 특약한 판매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따로 기록했다. 공성학은 이 날, 이전의 대공황 때 홍삼을 산더미처럼 적재해 놓고서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쓰이 물산이 대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5대 蔘號의 이야기가 미쓰이 물산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려는 술수인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sup>25)</sup> 미쓰이 물산을 대변하는 이러한 서술로 개성삼포조합과 미쓰이 물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1928년에 손봉상과 공성학이 대만과 홍콩 여행을 계획했을

24) 『중유일기』, 4월 1일자, “全十二時着京城南大門驛。三井會社京城支店長代理天野雄之輔持自働車出驛迎之。該氏自韓國時代掌紅蔘事務二十年于茲, 而中華出張凡六回。自專賣局青木局長今村課長交涉住井支店長, 使天野氏爲余一行案內以圖便宜有豫約定故爲此出迎。驛車往三井會社致謝, 仍往組長胤胤孫洪駿寓中火, 更詣總督府青木局長案內, 告別于齋藤總督有吉政務總監, 各有訓辭。”

25) 『중유일기』, 4월 7일자, “若以前金融恐慌時積貨如山而猶能維持價格者, 果非三井之大資本, 莫可以如此也。然而今聽蔘號五家所言, 價格若又減少則出售又加於現數, 此說或未知對三井鈞利之譎言。大抵萬物價貴則斬買, 價歇則爭買, 人之常情也。第與三井討議者酌量此點, 以薄利多賣爲主, 則顧余畊作者庶無生產過剩暴殄天物之歎也歟。”

때 여행 준비를 했던 공성구는 아마노와 만나 일정을 조율했고 아마노가 다시 동행하여 안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 “미쓰이 회사가 우리 홍삼판매권을 전매하여 판로가 안 좋았을 때에도 고려인삼 가격을 높게 유지시켜주었으니 오늘날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미쓰이의 덕분”이라고 하면서, 미쓰이 물산의 배려로 아마노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다.<sup>26)</sup>

이후 천진에서 홍삼 판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홍삼 저장고를 시찰하는 등 홍삼 판로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이 중국행의 공식적인 이유겠지만 43일 간의 일정 대부분이 유적을 보거나 도시 구경을 하는 데에 할애되었던 만큼 여행으로서의 성격도 강했다. 공성학 일행은 스승이었던 김택영을 만나러 갔고, 曲阜의 文廟에 대해 특기하고 있으며 廬山을 보기 위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도 했다.<sup>27)</sup>

공성학 일행이 여행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중유일기』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볼 때 개성삼업조합의 구성원인 공성학 일행의 중국 여행은 미쓰이 물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동행했던 아마노가 미쓰이 물산의 직원이고 공성학 일행이 경유하는 거의 모든 곳에 미쓰이 물산 지점 직원들이 마중 나오고 배웅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성학 일행이 “한말 조선문인”의 독자적인 시선을 견지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중유일기』 해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가 시모노세키[馬關]의 春帆樓에 올라 “이 춘범루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李鴻章 두 나라의 영웅이 日清講和條約을 담판 지은 곳이며 두 영웅이 앉은 의자가 여전히 누각에 남아 있어 인간사의 변모가 마치 산천 같다.”라고 언급한 대목<sup>28)</sup> 보면 미쓰이 물산과의 관계만 밀접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각이

26) 孔聖求, 『香臺紀覽』 권1, 「日記」, “因往三井物産京城支店, 見支配人代理天野雄之輔氏, 妥協發程日時而歸. 蓋三井會社權我紅參販賣權, 而當其販路不況之時, 能維持高麗參聲價, 竟收利潤於今日者, 誠三井之功也. 曾年上海之行天野氏爲案内, 而今又同伴者, 亦三井之厚意也.”

27) 『중유일기』, 4월 19일자.

28) 규장각 어학해제(황제문)에서 『중유일기』의 친일적 성향으로 지적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 해제에서는 대련에서 지은 시를 언급했는데, 해당 시는 5월 8일에 대련을 출발해서 여순에 도착한 뒤 러일전쟁의 격전지였던 白玉山 表忠塔과 鷄冠山 堡壘를 보고 나서 읊은 시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旅順凱歌日, 東洋勢可扶. 一心惟報國, 萬死盡忘吾. 塔光弔忠魄, 壘跡敬雄圖. 鷄冠山下客, 慷慨酒仍沽.”

일본의 관점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공성학의 『중유일기』가 전대의 연행록이나 표해록 등 중국 여행 기록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중국에 대한 尊慕의 감정이 소거된 시점으로, 또한 일본의 근대화를 우위에 둔 시각에서 쓰인 중국 여행기라는 점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공성학에게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는지, 이 시기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 개성상인 공성학이 본 중국의 모습

#### 3.1. 확장된 조선

##### ① 貫郷으로서의 曲阜

『중유일기』에는 두 차례 걸쳐 별도로 수록한 메모가 등장한다. 하나는 상해에서 중국의 5대 산호들이 홍삼 판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월 3일 만나절 동안 둘러본 곡부에 대한 짧은 기록으로, 문묘와 至聖林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文廟別記」와 「聖林別記」의 형식으로 수록되었다.

공성학 일행이 곡부에 도착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대체로는 미쓰이 물산에 소속된 현지 직원들의 안내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 중에 특별히 곤경에 처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이들은 제남의 鶴家旅館에 미리 전화를 걸어 물색해 놓은 안내인을 따라 새벽 2시에 泰安驛에서 기차를 타고 곡부로 향하던 중 새벽잠을 깨우는 안내자를 따라 급하게 역에서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 南驛이었다. 역에서 순찰하는 경관과 필담한 결과 급행차편이 있지만 남역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소지한 차표가 어제 차표라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이들은 호의적인 역장 덕분에 급행열차를 멈춰 세워 무사히 곡부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곡부에 도착한 뒤에도 일행 6명이 함께 탈 마차수가 확보되지 않아 일행 중 세 사람은 걸어서 5리를 가

야 하는 등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묘에 도착한 공성학은 “성인의 덕을 흠모하고 고적을 탐구하려는 열렬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갈 수 없었을 것이다.(若非慕聖德耽古蹟之熱心, 果是行不得也)”라는 표현으로 이때의 압담했던 상황을 서술하였다.

대부분의 조선 문인에게 공자의 묘와 사당이 있는 곡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별도로 정리해 놓은 「문묘별기」와 「성림별기」에는 각각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와, 공자와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 지성림에 대한 간략한 연혁과 내부 건물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공성학은 문묘와 지성림을 보고 규모가 매우 크고 삼엄하다[雄偉森嚴]는 점에 찬탄하면서 淸朝에 와서 대규모로 증축하고 화려하게 꾸민 것으로 볼 때 “유학자라면 청조가 우리 도를 숭배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파악하여 감복할 일이겠지만 (청조가) 한쪽을 회유하려는 책략일 지도 모르겠다”라고 기술한다.<sup>29)</sup>

그러나 공성학에게 곡부가 갖는 의미는 좀 더 남달랐는데, 그 이유는 곡부 공씨, 즉 공성학의 관향이 곡부라는 점 때문이었다. 13년 뒤인 1936년에 공성학은 자신이 설립한 春圃社에서 孔憲이 남긴 시와 사적을 정리하고 후학들이 선대 조상을 위해 쓴 시문들을 모아 2권 1책의 『孤山先生實紀』로 간행했다. 『중유일기』에서 곡부에 대해 길게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공성학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고 감회도 남달랐으리라 짐작된다. 공자의 후손 孔紹가 공민왕을 시종하면서 고려에 왔다가 잔류하면서 곡부 공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공소의 손자 중 한 명이 공은(생몰년 미상, 字 伯良, 號 孤山)이었다.<sup>30)</sup> 고려 말 문인이었던 공은은 조선이 건국된 뒤 태종의 부름을 거절하였다가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된 뒤 세상을 떴다.<sup>31)</sup> 이러한 시점

29) 『중유일기』, 5월 3일자, “使爲學孔子者, 無不一見感服其淸朝崇拜吾道之爲如何耳. 未知柔懷漢族之一策耶?”

30) 곡부 공씨는 후에 漁村公派와 孤山公派로 나뉘는데, 어촌공과 고산공이 공소의 손자 孔俯(1352~1416, 字 伯恭, 號 漁村)와 공은이다. 조선이 건국한 뒤 이들은 판이한 행보를 보였는데 공부가 조선왕조에 나아가 벼슬을 했던 반면, 공은은 두문동에 은거하였다가 상소문이 빌미가 되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떴다. 공성학이 『고산선생실기』를 편찬한 것으로 보아 고산공과 후손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촌공과 후손들 역시 공부의 선양하기 위해 1933년에 『孔漁村先生奉讚詩稿』(1책, 경성 : 三浦印刷所)를 간행하였다.

31) 李鼎絃, 「孤山公事蹟」(孔明烈 편, 『東國關里誌』 권2).

에서 곡부 공씨 일문이 선조의 실기를 간행하고 개성의 여러 문인들이 그 간행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개성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에게 공은은 공자의 후손[聖裔]이자 조선과 타협하지 않은 절의의 수호자였다. 권말의 「有司錄」을 보면 공성학은 재무담당[掌財]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공성학이 공은에 대해 쓴 시문도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정치적 활로를 차단당했던 개성상인들이 고려의 역사 복원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곡부 공씨 일문은 고려 유신의 후계자이자 공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 ② 金澤榮의 南通

이번 중국 여행에서 공성학에게 개인적으로 뜻 깊었던 일은 남통을 방문하여 스승인 창강 김택영을 만난 일이었다. 공성학 일행은 翰墨林書局에 전화를 걸어 창강 선생의 소재를 타진한 뒤에 찾아뵙겠다는 서신을 전했다. 연락을 받은 김택영은 점심 무렵에 이들을 찾아왔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검은 모자를 쓴 백발의 노인이 갑자기 들어섰다. 당에 있던 사람들은 먹는 것을 멈추고 놀라며 일어나 재배하고 맞았다. 선생께서는 韶山(손봉상)의 손을 잡으시며 구면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셨고 나는 뉘 15년이나 지난 데다 일찍 흰 머리가 나서 (기억이) 가물거리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海石(김원배)과 愼齋(박봉진)는 초면이었다.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사진을 찍고 선생을 따라 (당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갔다. 집은 임대한 것으로 매우 적막하였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일흔 넷의 노령에도 눈썹이 길고 수염이 풍성하였고 연세가 들수록 맑고 편안하셔서 우리 유학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sup>32)</sup>

32) 『중유일기』, 4월 13일자, “因點心之際, 一老人阜帽白鬚忽入, 堂中驚起吐哺再拜迎之. 先生執韶山手認得舊日顏面, 余面隔十五年兼早白依稀未認, 海石愼齋初顏. 陪話久之一同攝影仍隨先生往見居宅. 宅是一廬之借而極其蕭然. 但先生以七十四高齡, 長眉豐髯老益清寧, 爲斯文可賀.”

공성학이 김택영에게 한학을 배웠다는 것 이외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김택영과의 만남을 묘사한 위 인용문을 보면 45세의 공성학은 김택영을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기 때문에 김택영이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역시 별다른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손봉상을 김택영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렇게 해후한 이듬해인 1924년에 손봉상은 김택영과 함께 이곳 남통의 한묵임서국에서 『新高麗史』를 간행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비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한 김택영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고 한묵임서국에서 편집과 교정일을 하도록<sup>33)</sup> 추천한 사람이 바로 한묵임서국의 운영자 張謇(1853~1926)이었다. 『중유일기』에서는 장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남통은 작은 현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張謇씨는 스스로 방적 사업과 학교를 발전시켜서 도로 개수와 공원 설립에 있어 나라 전체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 창강 옹께서 이곳에서 19년이나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어진 주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선비들을 대하는 풍모는 더욱 존경할 만했는데 거기에는 문장과 필법에도 능하여 필명으로 현재 나라에서 두 번째라는 명성을 점하고 있으니 어떠했겠는가.<sup>34)</sup>

1882년 임오군란 때 吳長慶 휘하로 두 차례 조선에 방문했던 장건은 조선의 여러 문인을 접할 수 있었다. 金允植은 장건이 처음으로 만난 조선의 문인으로, 장건에게 김택영을 소개시켜 준 사람도 김윤식이었다. 장건이 귀

33) 한묵임서국에서 한동안 김택영이 여러 저술을 간행했다고는 하지만 편집·교정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출판사로서의 성격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묵임서국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鄒振環의 「再論金澤榮與翰墨林印書局」(『亞洲：文化交流與價值闡釋』, 廈門大學亞洲研究中心 편, 廈門大學出版社, 2010)에 따르면 1927년에 김택영이 세상을 뜬 뒤에는 고정적으로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없었고 이후 한묵임서국은 출판사로서의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본업이 인쇄업무인 곳으로 남게 되었다.

34) 『중유일기』, 4월 13일자, “蓋通州以一小縣, 賴張謇氏, 自手發展紡績也, 學校也, 道路之改修·公園之設立, 足可爲中國全幅之模範, 而滄翁之十九年爰居, 亦以其得賢主人也. 其下土之風, 尤令人欽仰, 况兼能文能筆, 筆名現占國中第二位云.”

국한 뒤 한동안 소식이 끊어졌으나 중국에 도착한 김택영이 연락을 취하면 서 장건은 김택영의 후원자가 되었다. 한묵임서국에 있을 때 김택영은 출판 일과 저술을 병행했고, 紫霞 申緯의 시집을 비롯하여 『韓國歷代小史』, 『校正三國史記』, 『新高麗史』, 『朝史纂』, 『高麗季世忠臣逸事傳』, 『重編韓代崧陽耆舊傳』, 『韓史纂』 등의 역사서, 『麗韓十家文鈔』, 『梅泉集』, 『重編朴燕巖先生文集』, 『崧陽耆舊詩集』 등 시문집을 간행하였다.<sup>35)</sup>

불과 2년 전인 1921년에 남통의 한묵임서국에서 간행된 『여한십가문초』의 교정자는 공성학과 李箕紹였다. 『여한십가문초』는 김택영의 제자였던 王性淳(1868~1923, 字 原初, 號 尤雅堂·敬菴)이 김택영이 가려 뽑은 『麗韓九家文抄』에 다시 김택영의 문장을 뽑아 합편하여 만든 책이다. 김택영이 망명할 때 원고를 들고 가서 남통에서 간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렇게 보면 1905년 전까지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개성문인들에게 김택영의 존재감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스승 김택영이 한묵임서국에서 간행한 일련의 저작물은 이후 공성학이 직접 자신의 글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물을 간행하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김택영이 끊임 없이 저서를 남기고, 조선 문인의 저서들을 선별해서 간행했듯이 공성학도 여행기록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글을 썼고 이러한 기록은 곧바로 간행으로 이어졌다. 1937년에 공성학이 편집, 간행한 『杜門洞書院誌』는 일차적으로는 조상을 현양하는 작업의 일환이겠지만 동시에 고려 유민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냈던 김택영의 『崧陽耆舊傳』 및 일련의 역사서가 쓰인 정황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 ③ 중국에서 만난 조선인

매일 매일 그날 보고 겪은 일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한 『중유일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에서 만난 조선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 조선 사람들은 단편적인 형태로 몇 차례 언급되고 있다. 4월 23일에는 漢口(湖北省 武漢市)에 머물렀을 때 개성에 있다가 최근에 이곳으로 옮겨온 李

35) 章開沅, 「張謇與中韓文化交流」, 『華中師範大學學報』, 2000년 11월 ; 倪怡中, 「南通翰墨林書局里的韓國學者」, 『博覽群書』 2006년 제3기.

康浩의 집에서 동향 친구 白台榮, 安元圭를 만났다는 언급이 간략하게 서술되었고, 4월 28일에는 天津 미국 조계지 내에 朴道一의 주택이 있는데 어린 시절 떠돌다가 미국인에게 길러져 막대한 유산을 받아 거부가 되었지만 본적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또 5월 9일에 만난 미쓰이 물산 직원 北出永福에 대해 “조선인으로 韓씨성이었는데 北出의 양자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 5월 12일에 봉천(심양)에 도착해서 들은 조선인 이야기는 만주로 이주해 온 조선인들의 상황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공성학 일행은 미쓰이 물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그 때 대구 출신의 조선인으로 副領事가 된 楊在河에게서 만주 농지개간사업을 위해 이주한 조선인들 사이에 벌어진 에피소드를 듣게 된다.

“5조건(所有權, 商租權, 押權, 年租權, 分作權)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데 이주해온 사람들 중 평안도 사람들은 말과 풍속에서 중국의 것을 원래 익히 들어서 심하게 곤란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언어나 풍속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었고 창졸간에 男負女戴하여 수천 리를 왔기에 매우 고달파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평안도 사람들에게서 거지의 찢어진 걸냥 마냥 수모를 당했으니 그 사정 또한 충분히 안타깝지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모두 안동과 봉천의 부영사로 온 뒤에는 저절로 경상도 사람들을 우대하게 된 탓에 그 영향으로 평안도 사람들이 감히 이전처럼 업신여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sup>36)</sup>

위의 인용문은 봉천(심양) 부영사인 양재하의 전언으로, 공성학 일행의 입장에서는 다소 씩씩한 내용이다. 대체적인 골자는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으며 그 주된 갈등은 현지 사정에 익숙한 평안도 출신이 적응하지 못한 경상도 사람들을 무시했다

36) 『중유일기』, 5월 12일자, “依五條權(所有權·商租權·押權·年租權·分作權)借地作農, 而移來民中平安道人言語風俗, 與中華素有習聞, 故不甚困難. 至若慶尙道人了無言俗之素講, 而狹地男負女戴顛連於數千里, 其困難殆有甚焉, 還受平安人之凌侮如乞兒裂囊, 其情狀亦足戚矣. 自我慶尙人俱爲安東, 奉天副領事以來, 自有愛黨之影響, 平安人不敢如前凌侮.”

는 것인데, 이즈음에 경상도 출신의 부영사가 부임해 옴에 따라 그동안 꺾박을 받았던 경상도 사람들이 비교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이다.

1921년의 『東亞日報』 기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에서는 “滿洲地方에 居住하는 韓人의 動態를 監視하고 內情을 詳細히 知得하기 爲하여” 봉천과 안동에 각각 변호사출신 金雨英과 회사 중역출신 양재하를 부영사로 임명했다.<sup>37)</sup> 그러나 1923년 공성학 일행이 방문할 당시에는 봉천에 양재하가 있었고, 안동에 김우영이 있는 상태였다.<sup>38)</sup> 양재하의 언급에 대해 공성학은 직접적인 논평을 하는 대신 심양에서의 감회를 시로 남겼다.

넓고 푸른 황혼의 심양성

조선에서 온 유민을 어찌 차마 보리오.

고생하는 동포들 이 무슨 날이기에,

이역만리에서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내나.

요동의 들판에서 머리를 파묻고

두만강 물결에 눈물 씻으며 우네.

북릉의 서탑 가에서 말을 세우노라니

눈 가득한 풍진에 마음이 철렁하네.

蒼茫落日瀋陽城 忍見流民自漢京

溝壑同胞此何日 農桑異域寄殘生

遼東野土埋頭盡 豆滿江波洒淚鳴

立馬北陵西塔畔 風塵溢目我心驚<sup>39)</sup>

이 시에서는 만주에서 노역으로 고생하는 조선인을 바라보는 착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경련에서 추운 요동 들판에서 개간하느라 고생하면서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견디다가 그저 두만강을 바라보는 것으

37) 「朝鮮總督府는 滿洲地方에 居住하는」, 『東亞日報』, 1921년 9월 25일.

38) 春坡, 「一千里 國境으로 다시 妙香山까지」, 『개벽』 제38호, 1923년 8월 1일, “安東縣 日本領事館에 暫問 들너 副領事 金雨英氏를 차자”.

39) 『중유일기』, 5월 12일자.

로 시름을 달래는 만주의 조선인들의 신산한 삶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양재하의 전해 준 에피소드가 흥미로운 점은 만주의 조선인이 겪는 고달픈 삶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공성학이 민족 갈등이나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들추지 않은 채로 민족 내 지역 갈등만을 부각시키는 점은<sup>40)</sup> 만주의 조선인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주에서 노역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조선인의 현실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동정이나 우울 같은 감정적인 비탄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성학이 갖는 인식의 한계가 보이나, 공성학이 느낀 우울함은 단순히 조선인이 만주에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성학 일행이 여행을 마친 뒤 국경을 넘기 전에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조선인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또 강 너머 동쪽을 바라보니 좌우의 산세가 磅礪하고 맑고 수려하였다. 조명호가 내게 말했다. “조선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산천이 중국보다 낫다고 하겠네.” 내가 말했다. “아름다우면 뭐하나, 우리 땅이 아닌데.” 함께 몇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sup>41)</sup>

개성상인 공성학이 바라본 중국의 어떤 면은 분명히 고국의 연장선상이라는 인식에서 포착된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학습한 공성학에게 중국은 완전히 새롭고 이국적인 곳일 수가 없었다. 특히 공성학에게는 본관이 라는 개인적 뿌리가 있는 장소이자 현재의 자신을 이뤄낸 스승과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자립적인 근대에 실패하며 식민지로 전락한 고국이 지나 온 모습이였다. 그러나 공성학이 중국에서 발견한 낯익은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이었고 몇몇 장소와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40) 해당 부분은 『중유일기』의 친일성향에 대한 심사위원의 논평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여 수록하였다.

41) 『중유일기』, 5월 20일자, “且看渡江以東, 左右山勢磅礪清秀. 趙謂余: ‘朝鮮無可誇者, 惟山川一脈堪誇於中華.’ 余曰: ‘雖美非吾土, 相與歎了數口氣.’”

제외하면 중국은 낯선 세계 그 자체였다. 1923년 이 시점에서 공성학은 한 학이라는 과거의 유산에 익숙해져 있기는 했지만, 그에게 더 이상 중국은 문명의 중심으로 군림하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에 와서 공성학이 새롭게 보게 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2. 새로운 중국

개성상인 공성학이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한 점은 거칠게 말하자면 한학이라는 과거의 유산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공성학이 유년 시절부터 한학을 공부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반 정보를 습득했다고는 했지만 막상 도착한 중국은 낯선 세계 그 자체였다. 식사할 때 삼, 사십 종씩 나오는 음식에 놀랐고<sup>42)</sup> 도처에서 들리는 중국어 발음은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다.<sup>43)</sup> 지나가는 길에 본 상여의 행렬도 구경거리였다.<sup>44)</sup> 아무리 책으로 많은 정보를 접해 익숙하다고 해도 결국 중국은 다른 언어에, 다른 생활습관을 가진 이국의 땅이었다.

그런데 『중유일기』의 새로운 점은 中華라는 후광을 걸어낸 중국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성학이 바라본 중국은 더 이상 찬탄의 대상도 아니었고 근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낙후된 나라였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을 동경하는 조선이라는 과거와 절연하면서 서양/일본의 근대화를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중국을 바라본 결과일 것이다.

#### ① 근대적 풍경

『중유일기』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목이 간간히 발견되는데,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도 그 중 하나이다.

42) 『중유일기』, 4월 7일자, “妓桌之坐遲不過一二十分, 食碗之進少不下三四十種, 其風俗加駭.”

43) 『중유일기』, 4월 7일자, “余不解四聲五音之韻調, 而但聽人聲樂音緊張而促急, 舌強喉(水+齒)如乳孩弄嬌.”

44) 『중유일기』, 4월 6일자.

5家 蔘號의 초대로 凌翠娼家에 갔는데 풍속을 보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들어가 보니 침대가 있고 앞에는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손님을 이끌어 침대에 앉힌 다음에 회장을 친다. 또 깊은 침대에서 한껏 꾸민 기녀가 손님에게 아편을 권하는데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다. 보아하니 이들이 아편을 많이 피워 기녀들은 누워서 아편을 갖다 바치느라 탁자 쪽에 나와 얼굴을 비칠 틈이 없었다. 동기들이 무수히 왔지만 그들의 드나들 도 어제 본 것과 한결같았다. 또 마작 등의 도박으로 소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미인들도 이러한 방법을 많이 따라 해서 즐긴다고 한다.<sup>45)</sup>

공성학은 중국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풍속에 놀라는 한편으로, 아편이나 도박으로 소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놀랍다”는 표현 이외에 특별한 소감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중유일기』에서 “놀랍다”는 표현은 선망과 실망의 상반된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성학이 중국을 직접 보면서 느낀 상반된 감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표현이었다.

4월 10일의 기록에서 공성학은 거대한 규모의 화려한 무도장에 가서 본 카페트의 고급스러움에 놀라면서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여러 남녀가 춤추는 광경을 보고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46)</sup> 기본적으로 공성학은 개발이 표상하는 ‘근대’의 가시적인 양상에 주목하는데, 항주의 명소를 둘러보면서 박봉진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가 생각하는 ‘근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

45) 『중유일기』, 4월 8일자, “赴五家蔘號招待于凌翠娼家, 爲觀土風而然也. 初入例有寢臺, 前設椅桌, 延賓請坐寢臺後隔帳. 又有寢臺精而輿, 主妓翠娼勸賓鴉烟, 余窺見駭然而退. 看他多吸, 故娼則臥而供烟, 不暇乎宴桌出頭也. 童妓又來無數, 其去就一如昨日所見, 又有義麻雀賭博消遣法, 近日歐米人多效習此法而娛樂云.”

46) 『중유일기』, 4월 10일자, “直入各國舞蹈場. 其結構之雄偉華侈爲世界劇場之第一. 登踏層階所鋪絨氈爲五萬圓價值云. 登最上層下視電燈輝輝之下, 各國他男他女互相扶肩而且舞且蹈旋旋幾回, 可笑又可駭.”

내(인용자주: 공성학)가 박봉진에게 말했다. “일본에게 만약 이런 땅이 있었다면 어찌 담장만으로 호수를 둘러졌는가? 내가 보기엔 중국인들은 깊은 곳에 있기를 좋아해서 따로 호숫가에 건물을 만들지 않은 것 같네. 만약 이런 명승지가 푸른 눈의 키 큰 서양인들에게 넘어갔다면 호반에는 빈 공간이 없었을 테지. 빨리 강남의 부용들이 이러한 생각을 깨달아서 건축물을 세워야 할 텐데 (그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뺏긴 뒤에 십 년이 지나고 다시 와서 이 호반의 누정들을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은) 지금 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닐 걸세.”<sup>47)</sup>

이 대목을 보면 공성학이 체감하는 근대의 모습은 새로운 문명을 상징하는 시설과 전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건축물 등 개발 그 자체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공성학은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서호 주변의 풍광을 보고 만약 여기가 일본이나 서양이었다면 이곳 주변은 벌써 건물로 즐비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인식은 공성학이 근대로 앞서 나가는 일본과 서양의 대척점에 중국을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해 및 몇몇 조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다니면서 공성학이 갖게 된 중국에 대한 인식은 근대로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공성학은 지금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건물을 세우는 등 일련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강남의 부용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뺏긴 뒤에 십 년이 지나고 다시 와서 이 호반의 누정들을 보게 된다면”이라는 대목에서는 어떤 위기의식마저 느껴진다. 현실의 문제로 돌아보면 공성학의 이러한 발언들은 의미심장하다. 공성학은 중국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경제력을 가진 “강남의 부용”들이 근대로 가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개성상인들이 다방면에 걸쳐 근대적 기업인으로 변모하는 모습도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인용문에서 명승지가 서양인에게 넘어간다면 금방 개발이

47) 『중유일기』, 4월 9일자, “余謂慎齋曰: ‘日本若有如此之地, 豈止空垣一片繞湖者哉! 余想見支那人好居深奧, 別無臨水軒敞之結構, 使此名區若歸於碧眼高準兒之所有則湖畔無暇地矣. 須早江南富翁覺醒此意, 而自各經紀建築. 無爲所奪十年後, 若更來看其湖畔亭樓, 非以今日可論也云爾.’”

될 것이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강남의 부옹들이 빨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부분인데, 공성학의 이러한 서술은 근대와 개발을 외세나 국권의 문제와 별개로 다루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우선적인 가치로 파악하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 ② 觀念景과 實際

독서를 통해 익숙해진 중국을 실제로 접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게 된 요인은 책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무형의 풍속이나 현재 상황만은 아니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상적인 관념경을 꿈꾸어 왔던 대부분의 문인들처럼 공성학 일행도 그간 오랜 典故나 名詩에 등장했던 중국의 명승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다. 공성학 일행은 항주에서 배를 타고 西湖十景을, 소주와 남경에서 시가지와 명승지를 둘러보았고 長江과 廬山, 赤壁, 泰山 등지를 바라보거나 찾아 올라갔다. 공성학이 중국의 명소를 찾아가서 보았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은 실제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거나 감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시문을 떠올리면서 그동안 상상했던 이미지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러다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곳에 비견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공성학은 여산의 풍경을 개성의 扶蘇山이나 朴淵瀑布와 비교했고,<sup>48)</sup> 소주의 留園을 보면서 책에서 읽었던 袁枚의 隨園을 상상했다.

이 정원은 홍건적의 난에 홀로 무사히 남겨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 정원의 주인 盛宣懷(1844~1916)는 유명한 부호였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회랑의 굽은 난간을 따라 한 구역으로 들어섰더니 春堂은 아기자기한데 꽃들이 이미 지고 없었고, 다시 한 구역으로 접어들었더니 夏亭은 맑고 서늘한데 네모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또 한 구역으로 꺾어 들어갔더니 秋閣이 우뚝 솟아 달을 완상할 만하였고 또 한 구역으로 접어들었더니 冬室이 평평하고 아늑하여 눈 내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원의 경

48) 『중유일기』, 4월 20일자, “然其泉石之幽夤 樹木之蒼鬱, 不可比肩於吾州之彩霞扶山也.”, “故仍立是處望半折瀑流, 視吾朴淵倍高, 而流勢則一般, 眞可謂遙看瀑布掛長川也.”

치는 사계절이 바뀔 때 따라 모습을 달리하였다. 예전에 袁才子의 隨園의 형태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정원을 보고 비교하자면 수원에는 문인의 경영법이 구체적이되 은미하게 나타난 것 같다.<sup>49)</sup>

실제로 정원을 보게 되었을 때 정원에 대한 문인들의 기록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 이런 모습이 전통적인 문인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隨園圖>에서 확인되듯이 원매의 수원은 앞에 커다란 연못이 있고 건물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화로운 정원이자 강남의 명사들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풍류의 공간이었고 값비싼 서적과 골동품이 있는 이상적인 강남의 정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공성학 일행의 기대는 상당 부분 무너졌다. 張繼의 <楓橋夜泊>의 배경인 寒山寺는 그동안 시문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절은 호젓한 산 속이 아니라 마을 한 가운데 있었고, 초라하고 지저분했다. 기대가 무너진 공성학이 이럴 바에는 보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하면서 장계의 <풍교야박>이 수없이 많은 시인묵객들을 오도시켰다고 한탄하는 대목은<sup>50)</sup> 현실을 미화한 문학적 수사에 매혹되었던 데에 대한 배신감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수사로 점철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공성학 일행의 실망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㉔ 나는 적벽의 소리를 들었지만 충분치 않아서 곧바로 일어나 갑판 위로 나가 오른편의 흙벽을 바라보았다. 소슬한 흙벽 아래 옛 물줄기가 있는 것이 마치 뿔나무밭이 바다가 된 듯 도리어 우리나라 임진강의 적벽만도 못했다. 두목의 “모래에 묻힌 부러진 창의 날은 아직도 남아있어, 가져와 닦아보니 옛

49) 『중유일기』, 4월 12일자, “園是獨留於長髮賊之兵燹故名之。園主盛宣懷，國中富戶，年前身故，沿回廊曲欄而入一區，春堂窈窕，花卉已殘。又折一區，夏亭清涼，方塘水滿，又折一區，秋閣崢嶸可賞月。又折一區，冬室平奧可聽雪。園中之景，四時代謝，而隨以改觀矣。曾觀袁子才隨園之圖，而目睹此園，以較想隨園，則文人之經紀，具體而微也。”

50) 『중유일기』, 4월 12일자, “唐張繼詩不云乎! ‘月落烏啼霜滿天，江楓漁火對愁眠。姑蘇城外寒山寺，夜半鐘聲到客船。’ 無人不誦而今到實地，寺在平街污濕之地，煉瓦鐵扉結構草草，可謂所見不如所聞也。噫! 楓橋夜泊之詩，幾誤了千古詩人墨客萬里之踪跡耶!”

왕조의 것이네. 동풍이 그때 주랑의 편이 아니었다면 봄날 동작대엔 이교가 간헐했지.(折戟沉沙鐵未銷, 自將磨洗認前朝. 東風不與周郎便, 銅雀春深鎖二喬)를 읊노라니 마음에 감흥이 있었을 뿐이었다. <적벽부>는 천고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지만 막상 와서 실경을 보게 되니 신기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소동파가 <적벽부>에서 말한 적벽은 또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에서 인용한 구절은 조맹덕이 싸우던 곳일 텐데, 적벽이 장강 말고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sup>51)</sup>

㉠ 산의 높이는 오천 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강산은 오천구백 척이다. 만약 우리 부자께서 금강산을 보셨다면 필시 “금강산에 올라가보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의 명성이 반드시 태산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니 걸출한 사람 때문이다. 영험한 땅 역시 사람으로 인해 이름을 얻는 것이니 그 또한 산의 ‘遇不遇’일 것이다.<sup>52)</sup>

머릿속에 그려 왔던 모습과 실제 보게 된 광경이 다른 것에 대해 ㉠와 ㉡에서는 모두 장강의 적벽이 “우리나라 임진강의 적벽만도 못하다”고 하거나 공자가 금강산을 봤다면 “금강산에 올라가보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고 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서는 태산의 명성을 ‘遇不遇’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 느꼈던 실망감과 우월함에 대한 의혹이 불식된 것은 아니었다.

공성학은 장소의 명성은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산의 ‘우불우’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는 중국의 명승지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불우’의 논리가 문제를 자

51) 『중유일기』, 4월 22일자, “余聞赤壁之聲未飽而徑起出甲板上, 右望一土壁. 蕭條壁下舊流滄桑互變, 反不如吾邦臨津之赤壁也. 詠杜牧之折戟沉沙鐵未銷, 自將磨洗認前朝. 東風不與周郎便, 銅雀春深鎖二喬, 令人感興而已. 蓋赤壁賦膾炙於千古人口, 而及見實境便不神奇. 或言東坡賦中赤壁又在別處. 若然則賦中引句是曹孟德之戰跡, 而赤壁捨長江而何處哉?”

52) 『중유일기』, 5월 2일자, “山之高稱五千尺, 而如吾金剛山則五千九百尺也. 若吾夫子見金剛, 則必曰: ‘登金剛而小天下’. 然而金剛之名未必勝於泰山者, 有以人傑. 地靈而地亦因人而名焉. 其亦山之遇不遇也.”

신의 재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운명 같은 외적 상황에 책임을 돌리면서 중국이 아닌 변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주가 있어도 천하에 포부를 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용례로 자주 사용되었던 점을 떠올려보면 공성학이 ‘우불우’를 산에 대입하는 의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공성학이 자금성을 방문한 뒤 과거에는 결코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권위의 공간이 지금 개방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는 다음 장면을 보자.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4천 년간 제왕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이다. 국운이 오고 가는 것이 물이 흐르고 구름이 비어 있는 듯하니 구중의 용루 위에 있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루아침에 개방되어 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것에 감회가 없겠는가! 또 먼 곳에서 온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개방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고 구경할 수 있었겠는가?<sup>53)</sup>

이 글을 보면 중국을 바라보는 상반된 심경이 교차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성학은 책으로 익숙하게 들었던 지명의 실제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한 관념적인 환상을 지우는 동시에 지금 이런 곳을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했다. 그는 끊임없이 명소를 보면서 그 곳이 책 속에 어떻게 그려져 있었는지를 떠올렸다. 유원을 거닐면서 눈앞의 정원 풍경에서 원래의 수원의 풍경을 보았고, 한산사가 장계의 <풍교야박>에서 그려졌던 한산사의 아취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했다. 적벽에서는 <적벽부>에서 느껴졌던 적벽의 위용을 찾으려 들었고, 『논어』의 글귀를 되뇌면서 태산을 바라보았다. 일견 중국의 여러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찬탄이 이전의 실망과 배치되어 보이지만, 그가 감탄하고 있는 것이 중국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3) 『중유일기』, 4월 26일자, “回想余等所履何地? 卽四千年帝王歷史之地也。運來運去, 水流雲空, 九重龍樓上千金無償之寶, 一朝開放, 爲千萬人之縱覽, 安得無興懷於今昔之異哉! 然且余等退方微踪, 不有此開放之今日, 豈可得觀覽耶!”

공성학은 감개에 젖은 채 자금성을 바라보았지만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하루아침에 개방되어 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언급은 달리 이해할 수 있다. 자금성의 개방은 청 왕조의 멸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언급은 전시대의 권위를 소멸시킨 근대에 대한 예찬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여행기간 동안 공성학이 보여준 감정은 다소 모순적인 데가 있다. 5월 4일에 지은 시에서 “잠 못 자고 끼니 걸렀다고 말하지 말게. 이 여행 백년 인생에서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나?”로 보여준 자부심과<sup>54)</sup> 5월 14일에 지은 시에서 “반병어리 신세로 시찰을 다니는 이런 여행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자조에서<sup>55)</sup> 상반된 감정이 부단히 교차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복잡하게 얽힌 감정은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공성학의 중국 인식에는 공자의 후손임을 자부하고 한학을 습득한 유학자가 가질 법한 과거 중국에 대한 동경과, 근대를 선도하는 일본의 시선으로 본 중국의 전근대성,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는 비슷한 근대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동질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 4. 낯익은 세계의 확인 : 결론을 대신하여

공성학에게 중국 여행은 한편으로는 벽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이들은 여행 내내 미쓰이 물산 직원들의 안내와 후대를 받았지만, 안락하고 여유로운 일정인 것만은 아니었다. 여행 기간이 긴 덕분에 방문한 곳이 많았지만, 일정이 빠듯한 탓에 새벽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개성에서 출발한 지 보름이 넘을 무렵 일행인 김원배가 홀로 조기 귀국하기로 결심할 정도로 여행은 고단했다. 그

54) 『중유일기』, 5월 4일자, “江南江北好躋攀, 身自奔忙意自閑. 百里命輿穿石磴, 五更催棹出津關. 心通淨界宿廬岳, 足躡層雲登泰山. 休道失眠且忘飯, 此遊能幾百年間.”

55) 『중유일기』, 5월 14일자, “無病作龔啞, 出門堪自嘆. 漢音鳩舌聽, 英字蟹行看. 衣帽和洋製, 名標視察團. 浪遊竟何益, 博得世人訕.”

러나 여행의 피로감보다 이들에게 더 피부로 와 닿았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다. 이 문제는 공성학이 처음에 함께 동행하자는 제안에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였고,<sup>56)</sup> 상해에서 중국의 5대 蔘號와 만날 때는 더욱 더 큰 문제로 다가왔다.<sup>57)</sup> 이 여행을 마치고 1928년에 다시 홍삼관로를 시찰하기 위해 개성삼업조합장 손봉상과 부조합장 공성학이 대만과 홍콩을 시찰하자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다. 대만과 홍콩 여행에는 技手 이토 기쿠지로[伊藤菊治郎]와 공성학의 사촌동생 공성구가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 했는데, 공성구가 수행원으로 뽑혔던 데에는 통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sup>58)</sup>

1928년의 여행에 비추어볼 때 1923년의 여행에서 이들이 본 것은 20세기 초 근대화가 실현된 신세계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 때 여행은 이들이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익히 알고 있던 중국의 역사·문화적 정보를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또 여정과 견문을 정리하고 감상을 시로 대신하는 『중유일기』의 체제는 『향대기람』에서 여정과 견문을 공성구가 정리하고 손봉상과 공성학의 시를 편차하는 체제로 분리되는 작은 변화를 겪었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중유일기』는 20세기 초 개성상인의 중국 체험기라는 여행기록물의 측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공성학뿐만 아니라 그 일행, 더 나아가 개성삼업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이들 집단은 문인 집단의 성격을 가진 상인들의 모임이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회를 열어 시문을 창작했고,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뿐만 아니라 개성 출신 문인, 고려와 관련된 책들을 간행했다. 그 가운데 공성학은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책의 출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1923년 직접 찾아갔던 곡부나 남통은 공성학에게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출판 사업의 방향성에도 연관되는 곳이었다.

56) 『중유일기』, <緒言>, “余蹶然曰: ‘組合長欲行之則余當從之. 但不能通中華之語爲欠事也.’ 曰: ‘吾與子之不能語學如七年之病求三年之艾也. 固哉! 子之言也.’ 朴趙兩君從傍勸余曰: ‘豈有學養兒而後產兒者哉? 余亦昧於華語. 然共當輔導勿失機會.’ 余曰: ‘兩兄與之俱則吾其備員矣.’”

57) 『중유일기』, 4월 6일자, “今來未得參考的文字, 只憑重譯之口舌.”

58) 공성학, 『香臺紀覽』, <跋>, “其記行一事委之聖求者, 爲其年壯, 而敏於強記, 嫻於通譯也.”

중국이라는 “아는 세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이번 여행은 공성학을 위시한 개성상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공성학은 단독으로 여행하지 않았고 국내든 국외든 몇몇 사람들과 동행했는데, 이들은 대개는 개성삼업조합에 속한 개성상인이었다. 이들이 이후 거의 일정하게 전통적인 형식의 여행 기록을 남겼다거나 전근대적인 글쓰기를 계승한 것은 이 시기 김동인, 이광수, 김억, 김소월 등 서북 지역 문인들이 근대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흥미롭게 다가오는 사실이나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초에 시문 창작과 출판 활동을 보인 일군의 개성상인 중 특히 공성학을 주목하고, 중국여행기록인 『중유일기』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 시기 이들의 문학 활동과 출판 사업을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 한문학의 창작과 계승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孔聖學, 『中遊日記』(1책, 규장각 소장본).

孔聖求 편, 『香臺紀覽』(4권 1책, 中央印書館, 193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2. 단행본

공진항, 『理想郷을 찾아서』, 濯菴孔鎭恒稀壽記念文集刊行委員會, 1970.

김성수, 『한국의 시장 상업사』, (주)신세계백화점출판부, 1992.

이훈섭, 『개성상인론』, 경기대학교출판부, 2006.

조기준, 『韓國企業家史』, 박영사, 1983.

조선총독부, 『조선인의 상업』, 한국전통상학회, 2002.

## 3. 논문

강만길, 「개성상인 연구-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성장」, 『한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1972, 85~113쪽.

고동환, 「조선후기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 역사문제연구소, 2001, 209~220쪽.

고동환, 「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327~380쪽.

김영수, 「한국 자본주의 가치관의 역사적 전통 - 조선시대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고찰」, 『동아연구』 4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2, 121~152쪽.

박평식, 「조선전기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177~213쪽.

양소연, 「日本近世商人 三井家 經營의 特質」,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6, 1~65쪽.

양정필, 「19세기~20세기초 開城商人의 蔘業資本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1, 1~113쪽.

유봉학, 「조선후기 개성 지식인의 동향과 북학사상 수용」, 『규장각』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3, 85~98쪽.

윤선자, 일제의 경제수탈과 개성의 삼업」, 『한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92~123쪽.

이훈섭, 「개성상인의 상업기반과 기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20, 한국전통상학회, 2002, 1~25쪽.

정광중, 일제통치하의 홍삼전매와 개성삼업농민의 역할, 『순국』 71, 순국선열유족회, 1996, 50~57쪽.

정종현, 「일본제국기 ‘개성’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279~329쪽.

홍순권, 「한말시기 개성지방 삼포농업의 전개양상 (상) - 1896년 《삼포적간성책 (蔘圃摘奸成冊)》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3권 4호, 일지사, 1987, 4033~4067쪽.

홍순권, 「한말시기 개성지방 삼포농업의 전개양상 (하) - 1896년 《삼포적간성책 (蔘圃摘奸成冊)》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4권 1호, 일지사, 1988, 1155~1199쪽.

A Study on *Diary of travelling China*(中遊日記) written by a Merchant  
from Kaesung(開城) in 1923

Yi, Eun-ju

Though *Diary of Travelling China*(中遊日記) of Sunghak Kong(孔聖學), as never been studied so far, this book is noteworthy in two respects. A Korean literati's writing about travelling around China of the Perio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at one point, the other one is that Sunghak Kong(孔聖學), the author of this book is a merchant from Kaesung(開城) and a literati learned from Takyoung Kim(金澤榮) and that had served in school of Classics(經學院) at the same time.

The travel group consisting of six members(Sunghak Kong(孔聖學), Bongsang Son(孫鳳祥), Myengho Jo(趙明鎬), Bongjin Park(朴鳳鎭), Wonbae Kim(金元培), Yunosuke Amano(天野雄之輔)) looked around various locations including Shanghai, Hangzhou, Nanjing, Qufu, Mount Lu, Mount Tai, Beijing, Dalian, Shenyang, under the auspices of Mitsui Company from April to early May 1923. Most of the writers of Chosun Dynasty wanted to travel to China, he was no exception. But he looked at China removed the halo of the center of civilization, the book is separated from the previous China travel records at this point.

He saw resemblances of Korea and China, on the other hand, had found new aspects of modern China. Qufu was the hometown of his surname, and his teacher had fled to Nantong in China. Therefore China was recognized as the home of the family and as the place where his teacher lives. He is connected with China in terms of family succession and academic relation, but it was a matter of very personal level. When you look at China with the exception of the connection point, China did not reign as a center of civilization any longer. Because of the traditional disciplines taught, he saw China's scenic landscapes and came up with landscapes imagined when he read every time. He constantly compared the actual appearance

of visible with landscapes imagined and was disappointed. China was not the subject of admiration and adoration to him. Modern China is rated as a backward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japanese. His perception based on china has changed from the degree of civilization to “modern” standards.

keyword : Sunghak Kong(孔聖學), *Diary of Travelling China*(中遊日記),  
1923, a Merchant from Kaesung(開城), Travelling around China,  
Modern, Mitsui(三井) Company

접수일자: 2012. 3. 31  
심사기간: 2012. 3. 31~2012. 5. 20  
게재결정: 2012. 5. 20